

임신진단을 위한 직장촉진법

하영국 역
(본회 함양지부)

직장촉진법은 경산돈의 임신 진단법으로 덴마크의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진단방법이든 초음파검사든 덴마크에서 시도되는 방법은 가히 독보적이다.

우리는 임신진단방법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값이 저렴한 것이 직장촉진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는 약간의 훈련을 통하여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신속하게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산돈에게만 권유되는 방법으로 임신후 35일이 경과해야하지만 경험적으로 28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경산돈의 직장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자궁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서 오는 압력을 감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경산돈을 감염이나 기타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약간의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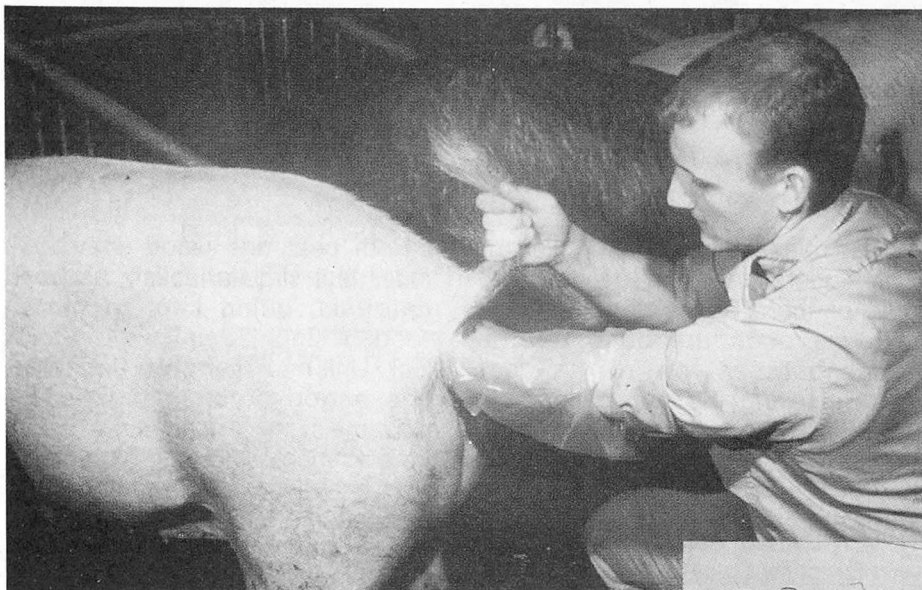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초보자인 경우 경산돈을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에 실시해야 한다. 고정시키지 않고 행하였을 경우 큰덩치의 경산돈이 갑자기 주저앉기라도 하면 진단자의 손을 부러뜨릴 수 있다. 후에 진단자가 능숙하게 되었을 때는 경산돈이 먹이를 먹는 동안에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초기에는 임신한지 60일이 경과한 몸집이 크고, 온순한 경산돈을 선택하는 것이 배우는 과정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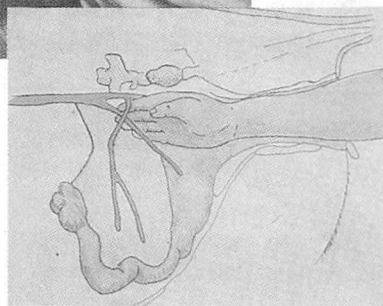
커다란 보호 플라스틱 소매장갑을 손에 끼고 윤활유를 묻힌 후 경산돈의 직장 속으로 손

을 팔꿈치부위까지 부드럽게 집어넣는다. 그다음 직장벽을 따라 손을 팔꿈치부위까지 부드럽게 집어넣는다. 그다음 직장벽을 따라 손을 부드럽게 밀어넣고 복부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 뼈를 느끼면 더이상 밀어넣지 말고 멈춘다. 복부와 뼈사이의 경계지점에 AIE(외장골동맥)이라는 대동맥이 있다. 이는 다리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뼈에 고정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진단자는 경산돈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진단자의 손을 뼈의 반대쪽에 있는 새로운 동맥을 느낄때까지 직장을 따라 뒤로 3~8cm 정도를 뺀다. 이 동맥은 뼈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어렵다. 이 동맥이 바로 진단을 위한 중



〈그림 1〉 직장을 이용한 임신진단법은 빠르고 믿음직한 기술이다.



자궁동맥이다.

복부로부터 빠져나오기 전에 진단자의 손을 가지고 외장골동맥과 중자궁동맥이 어떻게 겹쳐있는지를 감지하여야 한다. 진단자의 손을 다시 앞으로 밀어넣어 외장골동맥을 찾아서 이것을 진단자의 손가락으로 동맥의 흐름이 멈출때까지 눌러보고 진단자의 손을 혈액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천천히 놓아주면, 이때의 느낌은 손가락 끝에서 미끈미끈한 마른모래를 만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 “swirl(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이 동맥에 있어서의 고압의 신호이다.

중자궁동맥으로 돌아가서 같은 수행을 행하고 뼈쪽으로 향한 동맥의 압력과 소용돌이치

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경산돈은 임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진단자는 첫임신을 진단한 것이고 다른 경산돈에게도 행할 준비가 된 것이다. 몇번의 연습후에 진단자는 직장으로부터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 없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진단자가 자궁동맥에서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다른 쪽의 동맥도 테스트해 보고 그래도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였다면 이 경산돈은 임신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하여 몇마디 적어보면

정확하게 동맥을 진단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내에서 조금

뒤쪽에 떨어진 곳에 다른 동맥이 있는데 이는 외장골동맥과 겹쳐있지 않으며 이 동맥에서는 결코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할 수 없다.

외장골동맥과 겹치는 곳에서 자궁동맥을 눌렀을 때 진단자는 항상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신을 했다는 징후는 아니고 외장골동맥 자체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

(Pig International 94. 8월호에서)